

전주 KCC 전격 '부산행' 프로농구 호남팀이 없다

프로농구 KCC가 연고지를 전북 전주에서 부산으로 변경한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KCC의 연고지 변경을 승인했다.

2001년 대전 현대 걸리버 프로농구단을 인수, 연고지를 대전에서 전주로 바꾼 KCC는 이로써 22년 만에 전주를 떠나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연고지 변경 최근 사례는 2021년 6월 kt가 부산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옮겼고 그해 9월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전지랜드 농구단을 인수해 대구에 새로 동지를 트는 것이다.

부산은 2020-2021시즌을 끝으로 kt가 수원으로 떠난 뒤 2년 만에 다시 프로농구단을 유치했다.

홈 경기장은 kt가 사용하던 부산 사직체육관을 쓸 예정이다.

사직체육관은 현재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가 홈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KCC는 BNK와 함께 홈 경기장을 쓰기로 했다.

KCC 최형길 단장은 이사회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연고지 전주와 여러 문제로 시끄러웠다"며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왔으나,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연고지를 바꾸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단장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고, 시즌 개막도 앞둔 시점이라 오늘 이런 방식으로 알리게 됐다"며 "다 공개하기 어려운 구단 입장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22년간 응원해주신 전주 팬들께 가장 죄송한 마음"이라며 "KBL과 다른 구단에도 불편을 끼쳐 양해를 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체 농구 발전을 위해 새로 태어나는 구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KCC의 연고지 이전으로 프로농구 10개 구단 가운데 호남 팀이 없어지게 됐다.

SK와 삼성(이상 서울), 소노(경기도 고양), 인삼공사(경기도 안양), kt(경기도 수원)가 수도권 팀들이고 KCC(부산), LG(경남 창원), 한국가스공사(대구), 현대모비스(울산)가 영남에 연고를 뒀다.

DB(강원도 원주)가 유일한 강원도 팀이고, 충청권에도 프로농구팀은 없다.

최 단장은 "경기 일정에 이미 확정됐는데, (연고지 이전에 따른) 부분적인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CC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선수(FA)로 최준용을 영입하고, 송교창이 군 복무 후 복귀하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다.

또 이승현, 허용, 라건아 등 기존 선수들이 건재하고 이상민 전 삼성 감독이 코치로 합류하는 등 새 연고지 부산에서 곧바로 우승컵을 들 후보로 지목된다. 전창진 KCC 감독은 2015년 3월까지 kt 사령탑을 지낸 이후 8년 만에 부산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연합뉴스

KIA 퓨처스 주장 오선우 "기회의 가을, 꼭 잡아야죠"

잔여경기 엔트리 확대 기대감 "2년 간 준비한 것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10차전을 비로 치르지 못했다. 이를 연속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KIA는 남은 시즌 실 팀 없이 40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뻑뻑한 잔여 경기 일정에 KIA의 고민은 늘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늘었다. 엔트리가 확대되는 9월을 기다렸던 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 KIA 퓨처스 선수단 '주장' 오선우도 기대감으로 남은 시즌을 바라보고 있다.

오선우는 지난 8월 23일 올 시즌 처음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등록 이후 3경기에서 대수비로 잠깐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아직 자신의 장점인 타석에서의 힘은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KIA가 4번의 더블헤더를 소화해야 하는 등 가을 강행군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수비로 잠깐 그라운드에 올랐지만 "재미있다"가 오선우의 소감이다.

오선우는 지난 시즌 1군에서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앞선 2021시즌에도 6경기 16타석이 전부였다.

2019년 입단 첫해 오선우는 남다른 외모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퓨처스 선수단 '주장'을 맡은 올 시즌 오선우는 마음 먹고 몸을 불렸다.

오선우는 "외형은 필요 없다. 야구를 위해 포기했다. 진짜 보여줄 때다. 보여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말 뿐만 아니라 그는 퓨처스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에도 공을 들여 1루수 변신도 성공적으로 이뤘다.



오선우

오선우는 "퓨처스에서 2년 있으면서 준비를 많이 했다. (1군) 경기 세 번 나가지만 긴장이 전혀 안 됐고 재미있었다. 재미있다는 감정을 처음 느껴봐서 신기했다"며 "그 전에는 잘하자는 마음이 컸다면 지금은 준비한 대로만 하면 잘할 거라는 마음 가짐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예전에 1군 왔을 때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다.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잘하자, 버티자 이런 마인드였다. 2년 동안 준비를 계속 했다. 감독님, 코치님들, 트레이닝 파트에서 언젠가는 기회 올 것이라고 해주셔서 준비만 했다"며 "준비만 해두면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달라진 퓨처스 분위기도 오선우를 포함한 선수

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손승락 감독 체제로 바뀐 올 시즌 KIA는 성장과 성적을 동시에 잡고 있다. 손 감독이 결과와 아닌 과정에 주목했지만, 과정이 바뀌면서 결과도 달라졌다.

오선우는 "팀이 많이 달라졌다. 퓨처스 선수들 마음가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선수들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서 다 같이 응원도 하고, 하나가 됐다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흘러간 대로 했다면 2군 경기만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은 결과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군 룰업 받는 선수도 '대표' 선수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다.

오선우는 "누군가 룰업 되면 간 사람들이 잘 해줘야 후발 주자들도 자신감이 쌓인다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잘해야 퓨처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기회의 9월, 기다렸던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만 한다면 KIA의 위기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오선우는 "와서 역할을 하게 될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만 하면 잘 할 것 같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나도 예전에 1군 오면 '여기는 1군 저기는 2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던 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는 수비 연습을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 수비 나갔을 때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 손승락 감독님께 전화를 드려서 느낀 감정을 말씀 드렸다. 준비를 잘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주셨다"고 말했다.

오선우는 즐기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오선우는 "많은 경기가 남아서 좋다.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2년 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항저우AG 남자배구 대표팀 12명 확정

세터 한선수·미들 블로커 김준우 임도헌 감독 "좋은 성과 내겠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자 배구 대표팀 엔트리가 확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12명으로 구성된 남자 배구 대표팀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대표팀 공격을 조율할 세터로는 베테랑 한선수(대한항공)와 황택의(국군체육부대)가 뽑혔다. 아웃사이드 히터엔 정지석, 정한용(이상 대한항공), 나경복(국방부), 전광인(현대캐피탈)이 선발됐다.

이포지 스파이커는 허수봉(현대캐피탈)과 이동혁(대한항공)이 맡고, 미들 블로커는 김민재, 김규민(이상 대한항공), 김준우(삼성화재)가 책임진다. 리베로 박경민(현대캐피탈)은 수비를 전담한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대표팀은 29일 경기력향상 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12명의 선수는 31일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해 훈련한 뒤 9월 16일 항저우로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선수는 베테랑 세터 한선수와 미들 블로커 김준우다. 두 선수는 2023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대표팀은 대회를 마친 뒤 기존 선수들과 대표팀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의 몸 상태, 기량을 다시 살핀 뒤 소폭의 변화를 줬다.

임도헌 국가대표 감독은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했던 대회이고, 아시안게임은 결과를 내야 하는 대회"라며 "한선수는 그동안 무릎 상태를 잘 관리했기에 선발했다"고 전했다.

임 감독은 "최민호(현대캐피탈), 신영석(한국전력) 등 베테랑 미들 블로커들도 뽑고 싶었으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었다"라며 "김준우는 신장(195cm)이 작지만 점프력이 좋고 2단 볼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임 감독은 아울러 "진전 선수촌에선 프로팀과 세 차례 정도 연습경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우수한 선수들이 모인 만큼 아시안게임에서 꼭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달 대한체육회를 통해 12명으로 구성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엔트리를 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들 블로커 김준우는 해당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배구협회 관계자는 "부상 선수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며 "교체 과정을 통해 문제 없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29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경기 8회 초 1사 1, 3루 상황에서 희생타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샌디에이고 김하성, 2안타에 3출루 세인트루이스 에드먼, 끝내기 안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전 내야수 김하성(27)이 세 차례 출루에 성공하면서 2년 연속 50타점 고지를 밟았다.

김하성은 30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문 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2안타 1볼넷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24일 마이애미 말린스전 이후 7경기 만에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날렸고, 11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이어갔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74에서 0.276으로 소폭 올랐다.

김하성은 경기 시작과 함께 좌중간 안타를 날렸

다.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 잭 톰프슨의 2구째 몸쪽 직구를 잘 걸어냈다.

이후 후안 소토의 기습 본트 때 2루에 안착했고, 포수의 1루 악송구 실책으로 3루를 밟았다.

김하성은 2루 슬라이딩 과정에서 헬멧이 벗겨졌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내달렸다.

김하성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우익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아 선취점을 올렸다.

1-0으로 앞선 3회초엔 3루 땅볼로 몰려났지만, 2-2로 맞선 4회초엔 볼넷을 얻어내 멀티 출루에 성공했다.

1사 1루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6구째 높은 컷 패스트볼을 잘 잡았다.

두 번째 안타는 4-2로 앞선 6회에 생산했다.

김하성은 1사 2루에서 바뀐 투수 케이시 로런스를 상대로 행운의 내야 안타를 만들었다.

그는 풀카운트 승부에서 높은 공을 건드렸고, 타구는 상대 팀 내야수들 사이로 느리게 굴러갔다.

그 사이 김하성은 빠른 발로 1루를 밟으면서 내야 안타가 됐다. 다만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홈을 밟지 못했다.

김하성은 4-3으로 앞선 8회초에 귀중한 타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1사 1, 3루에서 좌익수 방면 큰 타구를 날렸고, 이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희생타가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49타점을 올렸던 김하성은 시즌 50타점을 채웠다. 그는 지난해엔 59타점을 올렸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의 맹활약에도 아쉽게 패했다.

5-3으로 앞선 8회말에 두 점을 내줘 동점이 됐고, 연장 10회말에 대타로 나온 한국계 혼혈 선수 토미 현수 에드먼에게 끝내기 안타를 얻어맞아 5-6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US오픈 테니스 본선 1회전 탈락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올해 월드컵 우승자 마르케타 본드로우소바(9위-체코)에게 패한 한나라(241위-부천시청)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려운 경기였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나라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본드로우소바에게 0-2(3-6 0-6)로 패했다.

2020년 호주오픈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로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 무대를 밟은 한나라는 올해 월드컵에서 우승한 본드로우소바를 상대로 1세트 초반까지 선전했다.

1세트 초반에 본드로우소바의 서브 게임을 두 번 연속 브레이크하며 2-2로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서브 최고 시속이 본드로우소바가 174km, 한나라는 137km일 정도로 차이가 났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인 본드로우소바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실력에서 부족한 경기였다"며 "예선에서 공이 좋았지만

본선은 달랐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예선에서 3연승 한 한나라는 "(웬만한 우승자인) 상대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제 플레이를 하지 못했다"며 "마지막 매치포인트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지만 어려운 경기였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한나라는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도 세 차례나 듀스를 펼치며 본드로우소바를 괴롭혔다.

한나라는 또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9년 전 처음 US오픈을 뒀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자력으로 본선에 올라왔다"며 "한국 팬 분들의 뜨거운 응원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도 선발된 한나라는 "귀국해서 바로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간다"며 "올해 남은 경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랭킹 사냥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연합뉴스